

## **Statistical research of PIFF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n audience trend and survey on satisfaction**

**Seung Bae Choi<sup>1)</sup> · Sungho Moon<sup>2)</sup> · Seung Jin Lee<sup>3)</sup>**

### **Abstract**

It has been 12 years since PIFF is first started. PIFF is first started in 1966 to provide opportunity for audiences who love movies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visual culture and opportunity for Korean movies could stand out in the world by showing internationally recognizable movies. To make energetic film culture in Korea, there should be thoughtful analysis on old PIFF and effort to solve the problem. For this reason, we researched on audience trend and satisfaction level who participated in 12th PIFF to find out hidden problem of PIFF, and provide a good direction which could solve the given problem.

**Keywords** : Asian Film Market(AFM),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PIFF), Pusan Promotion Plan(PPP)

### **1. 서론**

‘부산국제영화제(PIFF :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1996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의 영화축제로서 금년으로 12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PIFF가 발족할 당시의 영화계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관객 또한 수동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PIFF를 통하여 국내 영화계의 활성화와 세계 속의 한국 영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제 1회 PIFF의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진 결과로 인하여 제 2회부터는 국내와 아시

- 
- 1)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ata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E-mail : csb4851@deu.ac.kr
  - 2)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608-738, Korea E-mail : shmoon@pufs.ac.kr
  - 3) Project Director PIFF, yachting Center, 1393 Woo 1-Dong, Haeundae-Gu, Busan, 612-797, Korea E-mail : pd44@piff.org

아에서 영화의 제작 활동 및 원활한 배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산 프로모션 플랜(PPP: Pusan Promotion Plan)'이 출범했다. 부산프로모션플랜은 영화 공동제작, 영화관계자(제작자, 투자자 등)들 상호간의 영화 판매 및 수입 등 영화시장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3회 이후부터 국내외의 적극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PIFF에 있어 문제점은 첫째,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전기한 단점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원활한 PIFF를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화관련 행사는 '서울여성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인디포럼',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여성영화인축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가 국내에 많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종 영화제를 열어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종 영화제가 있음으로 해서 빛나야 할 곳이 빛이 덜하다면 이것 또한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는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PIFF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상기된 내용 이외에도 산적해 있지만 크게 본다면 상기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영화제로서의 매력을 잃을 수도 있고, 관객마저 부산국제영화제에 등을 돌리는 쇠약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 영화제가 많음으로 인하여 영화제와 관련한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다. 김복자(2005)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운영적인 측면과 성과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지훈(2006)은 PIFF의 환경체험(자연환경, 인위적 환경, 사건, 행태 등)과 장소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장소 이미지를 유추함으로써 보다 나은 PIFF 행사 거리의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화제가 영화축제로서만 아니라 영화산업화적인 측면에서 영화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홍(2006)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안미라(2006)는 '특성화영화제로서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각국의 영화제를 소개하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김지석(1999)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우석봉 외(2006)는 제 11회 PIFF 및 제 1회 아시안필름마켓(AFM: Asian film market)에 참가한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평가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1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부산F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한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성향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의 결과와 각종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여 향후 PIFF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행사가 되고, 영화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부산국제영화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 2. 자료분석

###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2007년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PIFF에 참여한 관객들 중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부산F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한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성향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 응답한 관객 1,051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는 PIFF가 행해진 다섯 곳(남포동, 해운대 메가박스, 해운대 프리미스 시네마, CGV 대연동, 해운대 퍼프빌리지)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인구통계학적측면을 제외하고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즉, (1) 방문동기와 일반적인 사항, (2) PIFF에 대한 만족도, 개선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3) PIFF 기간 동안 지출한 6개 측면에서의 비용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설문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기술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특성 상 관객성향과 만족도 조사인 만큼 빈도분석의 결과를 위주로 기술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본 절에서 사용된 모든 분석은 통계 전문 패키지인 SPSS 버전 12.0을 사용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방문동기와 일반적인 사항	동기, 숙박일, 일행인원수, 관심 프로그램 등	8문항
PIFF의 전반적인 사항	1. PIFF에 대한 만족도 2. 개선점 등 PIFF에 대한 견해 3. 금년 PIFF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만족도	12문항 5문항 8문항
PIFF 기간 동안 소비지출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	1. 영화 관람료 및 부대행사참가비 2. 부산시내 교통비용 3. 숙박비용 4. 식·음료비용 5. 관광비용 6. 쇼핑비용	6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거주지	6문항

## 2.2 인구통계학적변인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관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표가 [표 2]에 주어져 있다. [표 2]에서는 결측치는 제외한 유효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성별'을 보면, 나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34.9%와 65.1%로 나타나 여성의 관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로의 행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또는 재학)인 경우가 91.2%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들이 72.1%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지역'을 보면, '서울'이 15.7%, '인천/경기'가 9.1%로 수도권지역과 인접 지역인 '울산/경남'이 8.1%로 관객들에 대한 분포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최도시인 '부산(56.4%)'를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365	34.9
	여	680	65.1
연령	20대 이하	78	7.5
	20대	623	59.6
	30대	204	19.5
	40대	99	9.5
	50대 이상	42	4.0
학력	중학교 졸(재)	36	3.5
	고등학교 졸(재)	198	19.1
	대학교 졸(재, 전문대 포함)	749	72.1
	대학원 이상 졸(재)	56	5.4
가계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306	31.4
	100~200만원 미만	290	29.8
	200~300만원 미만	193	19.8
	300~400만원 미만	112	11.5
	400만원 이상	73	7.5
거주 지역	서울	163	15.7
	인천/경기	95	9.1
	대구/충청	39	3.7
	광주/전라	17	1.6
	부산	587	56.4
	울산/경남	84	8.1
	대구/경북	55	5.3
	강원	0	0
	제주	1	0.1

그리고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직업'에 대한 분포는 '사무직/전문직/연구원'이

20.4%, '기능적/생산적'이 3.2%, '판매/서비스적'이 5.9%, 자영업이 5.7%, '교사/공무원'이 6.8%, '주부'가 6.1%, '학생'이 41.8%, '오락/문화서비스 부문'이 1.5%, '무직'이 1.9%, '기타'가 6.6%로 나타나 학생들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무직/전문직/연구원'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PIFF가 학생 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 2.3 일반적인 사항

본 절에서는 PIFF에 참여한 관객들의 성향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객들의 일반적인 사항(주된 참가동기, 관심분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2.3.1 PIFF에 참가하게 된 주된 동기

설문응답자들 중에서 PIFF에 참가하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한 질문의 분석결과가 [표 3]에 주어져 있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영화에 흥미가 있어서', '국제영화제의 호기심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항목들에서 각각 39.0%, 22.6%, 20.9%의 응답을 보여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들이다. 특히 세 항목들 중에서 '영화에 흥미가 있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PIFF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서 '국제영화제의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2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 PIFF에 참가한 사람들은 PIFF가 국제적인 행사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PIFF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많은 관객들이 PIFF가 국제행사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PIFF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더 잘하도록 되돌아보아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3] PIFF에 주된 참가 동기

구분	빈도(명)	퍼센트(%)
참가동기	영화에 흥미가 있어서	410 39.0
	국제영화제의 호기심 때문에	238 22.6
	폭넓은 영화지식을 얻기 위해서	79 7.5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220 20.9
	좋아하는 배우(감독)를 보기 위해서	61 5.8
	기타	43 4.1

#### 2.3.2 PIFF에서의 관심분야

PIFF에 참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여 관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분석을 위하여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1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들의 중요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들 간에 중요도 분석은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

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순위에 5점, 2순위에 3점, 1순위에 1점, 그리고 1순위에 10점, 2순위에 5점, 1순위에 1점 등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중요도 분석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 항목들 간의 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행히도 몇몇 경우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음에도 각 항목 간에 순서의 변화가 없었다. 중요도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주어져 있다.

[표 4] PIFF에서의 관심분야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중요점수	순위
관심 분야	개폐막식	472	69	44	1595 1
	칼라 프레젠테이션	70	52	45	359 6
	아시아 영화의 창	110	119	70	638 2
	새로운 물결	36	75	55	313 7
	한국영화의 오늘	74	124	64	534 5
	한국영화의 고전	10	31	47	139 11
	월드시네마	76	125	140	618 3
	와이드앵글	23	33	49	184 10
	오픈시네마	59	150	124	601 4
	플래시포워드	1	4	36	47 13
	미드 나잇 패션	31	59	86	297 8
	특별전	24	28	68	196 9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없다	20	9	17	95 12

[표 4]의 결과를 보면, '개폐막식'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중요도 점수로 얻어져 PIFF 행사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 영화의 창', '월드시네마', '오픈시네마', '한국영화의 오늘' 등의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는 '플래시포워드'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별전이라 함은 뉴 말레이시안 시네마의 세 가지 색깔, 아시아 작가 영화의 새 지도 그리기 등을 의미한다.

## 2.4 PIFF에 대한 만족도

본 절에서는 PIFF 기간 동안 관객들이 전반적인 사항(시설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 안전관리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4점척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주어져 있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상영관 등의 시설'이 4점 만점에 평균 3.02를 얻어 상영관의 시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화제 홍보 활동'이

3.0점을 얻어 다음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도 거의 3점대에 가까워 이번 제 12회 PIFF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관객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 지역의 관객들의 편의시설(숙박, 관광, 쇼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리 우려할 만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표 5] PIFF 행사관련 사항의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행사 관련 사항	상영관 등의 시설	3.02	0.635
	해운대 피프빌리지 내 프로그램 및 시설	2.98	0.663
	영화제 홍보 활동	3.00	0.678
	영화제 및 출품작 정보 안내	2.95	0.714
	교통, 숙박, 쇼핑 정보 안내	2.79	0.707
	입장권 구입 방법(예매 포함)	2.86	0.742
	행사장 안전 관리	2.89	0.733
	상영관의 분산(남포동, 해운대, 대연동)	2.72	1.263
	이동(교통)의 편리성	2.71	0.796
	숙박 여건	2.82	0.694
	관광 여건	2.94	0.685
	쇼핑 여건	2.91	0.704

## 2.5 PIFF의 개선 및 발전사항

### 2.5.1 개선사항

향후 FIFF가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PIFF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객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가 [표 6]에 주어져 있다.

[표 6] 개선해야 할 사항

	구분	빈도(명)	퍼센트(%)
개선 사항	상영관의 분산(남포동, 해운대, 대연동)	279	27.2
	입장권 구입 방법	284	27.7
	안내원 및 안내시설의 부족	129	12.6
	상영장 및 행사장에 대한 불편한 교통	158	15.4
	행사장 청결문제	83	8.1
	행사장 안전문제	62	6.0
	기타	31	3.0

[표 6]의 결과 PIFF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상영관의 분산(남포동, 해운대, 대연동)'과 '입장권 구입 방법'이 각각 27.2%와 27.7%로 나타나 향후 PIFF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입장권 구입방법은 PIFF에서 적절한 안을 도출해 내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영관의 분산으로 관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설 상영관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수입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 상영관도 PIFF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내원 및 안내시설의 부족'과 '상영장 및 행사장에 대한 불편한 교통' 항목 각각 해결해야 할 비율이 12.6%, 15.4%로 다소 높게 나타나 PIFF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행사장 청결문제'와 '행사장 안전문제'는 각각 8.0%, 6.0%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그리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아 이번 제 12회 PIFF에서 행사장의 청결문제와 안전문제에 많은 대비를 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 2.5.2 발전사항

향후 PIFF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부족한 면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것은 PIFF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관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표 7]에 주어져 있다. [표 7]의 결과는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을 관객들이 복수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표 7] 발전시켜야 할 항목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발전 항목	작품성 있는 출품작 선정	285	23.3
	대중성 있는 출품작 선정	237	19.3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233	19.0
	유명영화인(영화배우, 감독 등) 초청 확대	180	14.7
	사전 홍보 강화	112	9.1
	다양한 이벤트 개발	178	14.5

[표 7]의 결과를 보면 ‘작품성 있는 출품작 선정’ 항목이 285명이 응답하여 전체의 23.3%로 나타나 PIFF가 앞으로 발전을 위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PIFF가 국제영화제인 만큼 관객들이 피상적으로 축제분위기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화다운 영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항목들 모두에 있어 많은 관객들이 응답하여 PIFF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항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발전 방향

본 절에서는 2절의 분석결과와 실제적으로 PIFF가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PIFF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1 설문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2절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도출하고, PIFF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제안한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빈도분석 결과,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경기’와 부산의 인접 지역인 ‘울산/경남’에서 다소 PIFF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주최도시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행사에도 못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전기한 바와 같이 국내에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영화제가 지역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시대가 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영화제가 많이 만들어 진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은 영화제가 생기므로 해서 오히려 PIFF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각종 영화제의 존재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영화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량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지만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PIFF이든, 타 지역의 다른 영화제이든 간에 상관

없지만 PIFF는 국내에서 최초로 탄생한 국제영화제인 만큼 인지도도 그 어느 지역의 영화제보다도 잘 알려져 있고, PIFF가 그 역량을 잘 수행한다면 향후 영화계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IFF에 참여하는 비율을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계층에서 적극적인 참여만이 PIFF를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PIFF 행사의 관심분야 측면에서 보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행사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영화관계자가 아닌 관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2.3.1 절의 PIFF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해의 행사에서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행사일수록 다음해에 다시 찾는 관객들이 늘어 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셋째, PIFF 행사관련 사항의 만족도에서 다행히 높은 평가를 얻기는 하였지만 PIFF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더 한 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 ‘입장권 구입 방법’에서는 관객들이 손쉽게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2.5.1절에서 언급하였지만 보다 많은 일반 영화관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영화관을 대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사항인 ‘상영관의 분산’에 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부산 내의 한 곳, 예를 들면 남포동 한 곳에서만 모든 행사가 치러진다면 이 또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기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은 아파트 부지나 골프코스와 같은 대단지 영화관의 거리를 건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발전사항에서 사전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결부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후에도 언급하겠지만 PIFF를 치루기 위해서 협찬사와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물론 많은 협찬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방송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찬조 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사전 홍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단지 기사 작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PIFF가 국제적인 행사임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찬조홍보를 해 주는 것만이 사전홍보에 대한 미흡함을 보충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3.2 실재적인 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1절에서는 설문결과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PIFF가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본 절에서 논하는 내용이 3.1절에서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도 제시하였지만 크게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PIFF를 준비하는 기간은 통상 4개월 정도이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팀 구성도 준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다가 PIFF가 끝나게 되면 해산하게 된다.

즉, 행사 종료 후 행사에 대한 결과물을 남기는 등 마무리를 하고 나면 다음 해의 PIFF를 위한 꼭 필요로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영화제 관련 대다수 스텝들은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행사를 치르다 보면 PIFF에 관한 업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내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4개월이 아닌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원들을 늘려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번째 문제점과 결부되는 내용이지만 원활한 PIFF를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발생된다. 즉,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PIFF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찬사 등의 호응도가 낮아 PIFF를 위한 예산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PIFF가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로 한다. 또한 자자체에서의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협찬을 하면 더 없이 좋은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사에서도 취재도 좋지만 찬조 사전홍보를 일회성이 아닌 충분한 홍보를 해 주는 것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단지 홍보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진행과정에서 재정적인 관계 잘못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만 하는 것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비방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영화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넷째,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는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많은 국제 행사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기는 하지만 행사가 치러지는 기간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정신은 원래대로 복귀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국제행사는 유치될 경우에만 치러지는 반면에 PIFF는 매년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민정신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졌다 할지라도 옥에 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PIFF를 치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전한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기한 네 가지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네 가지 만이라도 충족된다면 보다 나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영화제로 거듭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제 1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얻어진 설문결과와 FIFF가 치해 있는 실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PIFF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PIFF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들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PIFF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잘 하고 있으며, 잘 버텨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자자체, 협찬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없이는 더 이상의 국내에서 국제영화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견실한 PIFF가 됨으로

써 스크린 퀘터제로 인한 국내 영화의 불황을 오히려 한국에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김기홍 (2006).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 김복자 (2005). 부산국제영화제의 운영과 성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3. 김지석 (1999).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와 과제, 청년포럼, 부산국제영화제.
4. 안미라 (2006). 특성화영화제로서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5. 오지훈 (2006). 부산 광복동 PIFF거리의 장소이미지 해석 - 내용분석 및 GIS 활용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6. 우석봉, 김영표, 이선영, 최우영 (2006). 참가자 실태조사 및 평점효과분석, 청년포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 2007년 11월 접수, 2007년 11월 채택 ]